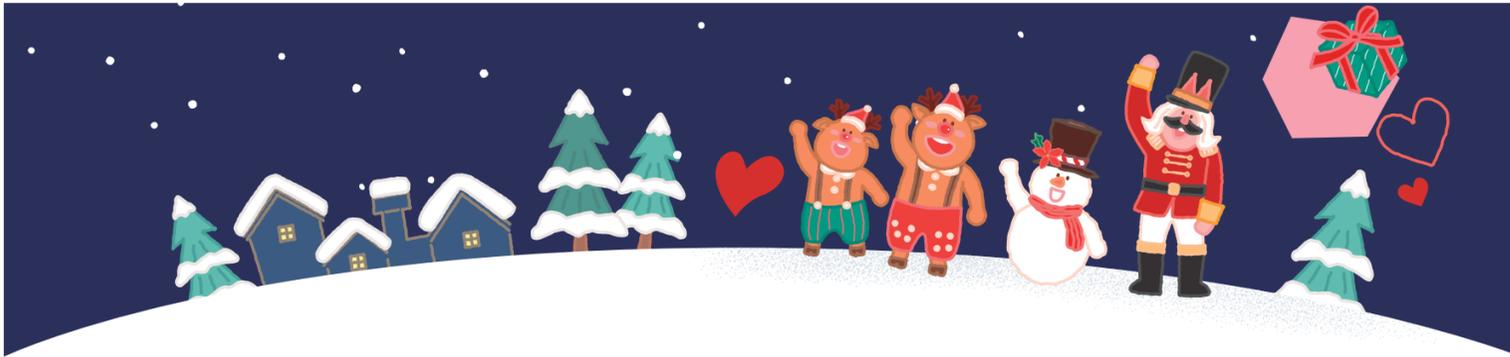


‘화순 미리크리스마스 축제’ 야간관광 활성화 기여



전남도·전남관광재단·지자체 공동 추진 화순 남산 공원 신규 관광명소 탈바꿈 ‘와글와글 밤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화순 밤빛여행’ 야간경관 버스투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기능성 제시

화순 도심 속 남산공원 축제 ‘미리미리크리스마스’와 고인돌 전통시장의 ‘와글와글 밤시장’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남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특색있는 볼거리·즐길거리로 신규 야간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관광재단이 화순군과 추진한 ‘미리크리스마스’ 축제는 동내 산책 코스로 머물렀던 남산 공원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며

연일 SNS에 화순 크리스마스 트리 상품이 연일 게시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다.

이 사업은 전남관광재단과 화순군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화순 도심속 남산공원 축제 ‘미리미리크리스마스’와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와글와글 밤시장’으로 기획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달 먼저 만나는 크리스마스라는 컨셉으로 플라마켓과 전국에 2번째로 선보이는 큐브식 조명 대형 트리를 화순 남산공원 중심부에 설치해 행사 당일 2만 7000여명 방문객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어둠속에서 빛을 밝히는 희망을 담은 빛조명 큐브 트리는 10m로 초대형으로 제작되었으며 각양각색으로 빛나는 조명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치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구조물과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과

공예품, 먹거리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이 판매되어 로컬 관광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은 시장 상인들의 손맛을 담은 먹거리로 구성된 ‘와글와글 밤시장’에 재미를 더하기 위한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남녀 노소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별도로 전남관광재단과 화순군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등 관광 소외계층을 위한 야간경관 버스투어인 ‘화순 밤빛여행’을 운영 중이다.

이 상품은 회차별 40명의 탑승객을 모집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꽃강길음악분수’, ‘개미산전망대’, ‘남산공원’ 등 화순의 대표적인 야간명소들을 둘러보는 야간관광 코스다.

화순밤빛여행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회차별 선착순으로 참여자 모집이 진행된다. 현재 3회차가 진행됐고 남은 1회차(5일)는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다.

최동환 기자·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동절기 연료비 등 긴급 지원

화순군은 2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득 상실, 중환자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사망·실직·질병·이혼·화재·체납 등)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고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8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 25만 원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소득 429만원 이하(4인 기준), 재산 농어촌 1억 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이하이다.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할 시 언제든지 화순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61-379-3941~3943)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허신심 사회복지과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위기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곡성군, ‘곡성물’ 입점 업체 대상 제품 개선 등 홍보 마케팅 교육

곡성군은 지난달 28일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물’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교육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4번째 실시하는 입점 업체 대상 교육으로 곡성물에 입점한 관내 농가, 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입점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온라인 홍보와 제품 개선 방안과 같은 판매 상품 마케팅 전략을 안내했다.

곡성물 담당자는 올해 운영 성과와 현황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곡성물 위탁 운영 업체 관계자는 입점업체 관리자 페이지 매뉴얼 교육을 통해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부터 정산까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교육 마무리에는 곡성군과 업체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곡성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업체들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차크(chak) 결제 시스템’과 매주 수요일마다 8품목씩 30% 할인하는 ‘수요특가’에 기대감과 만족감을 드러냈다.

곡성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외적 확장을 통해 곡성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직거래 판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 태안사 금고·태안사 사적기’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

곡성군은 ‘곡성 태안사 금고(金鼓·사적기)’, ‘곡성 태안사 사적기(事蹟記) 일괄’이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된다고 2일 밝혔다.

곡성 태안사 금고는 1770년(영조)에 조성되었다. 크기는 지름 83cm, 두께는 18.8cm이다. 금고는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절에서 쓰던 의식 법구의 하나이다.

태안사 금고 측면 음각 명문을 통해 제작연대, 봉안 지역 사찰, 제작자를 알 수 있다. 태안사 금고는 크기가 대형이고 조형미와 문양의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 불교 공예사적 가치를 지녔다.

곡성 태안사 사적기 일괄은 동리산태안사사적 외 12책이며 태안사 기록에 관한 자료들로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필사본 문적이다. 태안사각전각의 내력을 알 수 있고 역대 주지 스님과 그 시대의 불사, 사찰 운영 등을 알 수 있어 불교문화사와 향촌사회의 측면에서 역사적 학술 가치를 인정받아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난달 28일 지정 예고됐다.

이처럼 곡성군은 지역의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곡성향교, 곡성 유평로 정열각이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승격 지정예고되어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지난달 28~29일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곡성군 여성단체협의회, 김장김치 나눔 활동

관내 350여 곳에 전달

지난달 28일과 29일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봉숙)와 자원봉사자 160여 명이 곡성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용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매년 열리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 곡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정성껏 담긴 김장김치를 관내 350여곳에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수급가구, 조손가정, 부자가정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

소, 아동공동생활가정 1개소이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와 양념 등 재료비가 상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회원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박봉숙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올해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여하여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120%이하→140%이하

화순군은 2일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

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화순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등 관련 서

류를 제출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화순군 치매안심센터(화순읍 충의로 40)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79-5316)로 상담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